

## 2018년 1차 경찰 (3/24)

### 출제경향과 난이도

1) **난이도** : 하하-상상의 9단계로 보면 **상하**이다. 경찰시험 중 최고로 어려웠던 2017년 2차 시험과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편이었다. ( 2차 시험이 함정문제가 많았고, 찬양회, 동티모르같은 뜻밖의 지문이 많이 나온 반면, 이번시험은 함정문제는 거의 없었고, 10번 [호기가]이외에는 생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문이 길고, 심층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많았기에 요약식으로 한국사를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이다.

- 최상위권은 90점 이상을 맞았을 것이며, 80~85점이면 합격선이라고 볼 수 있다.

① 개수 찾는 문제(일명 박스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2017년 1차,2차,복부여경 시험에 이어, 이번에도 개수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 개수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② 지문이 길고 복잡해보이지만, 중요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였다.

2) **출제비중** :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15:5였으며, 근현대사의 경우 20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존과는 달리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대책]

★ **중요한 것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 시험을 보고 더 지엽적인 것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번 시험은 지엽적인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얼마나 기본 지식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었다. 문제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 **한국사 단어장 같은 요약집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 최근 한국사는 다른 직렬의 경우, 어렵게 나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서울시문제나 하반기 문제를 보면 정말 높은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7급 국가직 같은 경우, 영어가 관련시험으로 대체되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짐작된다.) 그래서 예전처럼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주로 한국사 사건들이 단어처럼 나열된 요약집을 보는 학생들은 공부한 노력에 비하여 성적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다. 특히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호기가][모스크바3상회의 4개항 결의서]외에 지엽적인 것은 나오지도 않았고,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숙지하는 것이 관건인 시험이었다. 고로 엄청난 단어가 나열된 요약집(요약집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서보다 내용이 더 많은) 같은 것 달달 외우는 방식은 노력대비 효과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1.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동기 시대에는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등이 제작되었다.
- ② 청동기 시대 후기에 이르면서 한반도 내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다.
- ③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빈부 격차와 사회 분화가 나타났다.
- ④ 보리, 밀, 팥, 콩, 조, 기장 등이 재배되었으나, 아직 벼농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답 : ④

해설 ①②③이 청동기시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④ 청동기시대부터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신석시대의 조·피·수수와 함께, 청동기 시대에는 새롭게 벼·보리·콩 등의 작물이 재배되었다.)

난이도 : 하

2. (가)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는데 개마대산은 큰 바닷가에 맞닿아 있다. …… 그 나라 풍속에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를 삼는다.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나) 남쪽으로는 진한과, 북쪽으로는 고구려·옥저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다. ……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 ① (가) 신부의 집 뒤에 서옥을 짓고 훗날 자녀가 태어나 성장하면 아내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 ② (가)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회의를 통해 사형시키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 ③ (나) 족장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④ (나) 씨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족외혼 풍습과 다른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 말, 노비로 보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답 : ④

해설 (가)옥저(민며느리제) (나)동예(무천) →④가 적절하다. 동예의 책화

[오답체크] ①고구려의 서옥제 ② 고구려의 제가회의 ③부여

난이도 : 하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 체제를 정비한 것은 고구려였다. 졸본성에서 (가) 으로 도읍을 옮긴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에 이르러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복 활동 과정에서 커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왕권이 안정되어 왕위가 독점적으로 세습되었고, 통합된 여러 집단은 5부 체제로 발전하였다. 이후 2세기 후반 (나) 때에는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 온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으며, 족장들이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는 등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백제는 기원 후 1세기 중엽에 마한을 공격하고, 3세기 중엽 (다) 때에는 위(魏) 지배하의 낙랑군과 대방군 그리고 말갈족을 북으로 밀어 내면서 영토를 넓히고, 국가 체제를 새롭게 정비했다. 즉 중앙에 6개의 좌평(佐平)을 두어 업무를 분장시키고, 16품의 관등제와 백관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여 지방 족장들을 차등 있게 중앙관료로 흡수함으로써 정비된 고대 왕국의 모습을 갖추었다. 신라가 세습왕권을 확립하고 지금의 경상북도 일대를 장악하게 된 것은 4세기 후반의 (라)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3성교대가 끝나고 김씨가 세습적인 왕권을 확립하고 군장의 칭호도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부족 집단인 6촌도 이 무렵 행정적인 6부로 개편되었다.

- ① (가) 국내성, (나) 고국천왕, (다) 고이왕, (라) 지증왕

- ② (가) 평양성, (나) 고국원왕, (다) 근초고왕, (라) 내물왕
- ③ (가) 국내성, (나) 고국천왕, (다) 고이왕, (라) 내물왕
- ④ (가) 평양성, (나) 고국원왕, (다) 근초고왕, (라) 지증왕

답 : ③

**해설** (가) 고구려는 1세기경에(2대 유리왕) 수도를 압록강변의 국내성으로 옮기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	고구려	백제	신라
2	후한	태조왕 (나) 고국천왕		
3	삼국시대 (위촉오)	동천왕	(다) 고이왕	
4	위진 남북조 시대	미천왕	근초고왕  침류왕	(라) 내물왕(~402) (광개토대왕의 도움!)
		고국원왕  소수림왕		

난이도 : 중

(길이만 길지 중요한 것만 제대로 알면 쉽게 풀수 있다.)

4. 신라 말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8세기 후반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 15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었다.
- ② 당에서 돌아온 6두품 계열의 유학생들이 제시한 개혁안이 정치에 반영되었다.
- ③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해지면서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농민 봉기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 ④ 견훤은 완산주에 도움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고, 궁예는 송악에 도움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다.

답 : ②

**해설** ①③④가 신라말 사회모습으로 적절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② 진성여왕때 최치원(시무10조)의 사례를 보더라도 당에서 돌아온 6두품 계열의 개혁안이 정치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6두품은 도당 유학생출신 중심으로 사회개혁을 시도했으나(최치원의 [시무10조] 등) 실패하고, 은거하거나 반신라적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난이도 : 중하

5. 다음 개혁안이 등장한 왕의 재위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초창기였으므로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보건대 향리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고 학대하므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 청하건대 외관을 두시옵소서.

- ① 적극적인 북진정책의 결과로 북쪽 국경선이 대동강을 넘어 청천강 선으로, 동북으로는 원산만에서 영흥(永興)까지 확대되었다.
- ② 자색(紫色), 단색(丹色), 비색(緋色), 녹색(綠色)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③ 중앙문관에게는 문산계를, 지방호족인 향리와 노병 등에게는 무산계를 부여하는 등 관료와 호족들의 서열화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 ④ 교종과 선종의 불교계를 정리하기 위해 교종의 여러 종파를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선종의 여러 종파를 법안종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답 : ③

**해설** 제시문의 왕은 고려 6대 성종이다.(청하건대 외관을 두시옵소서-12목 설치)→ 성종때 ③ 중앙문관에게는 문산계를, 지방호족인 향리와 노병 등에게는 무산계를 부여하는 등 관료와 호족들의 서열화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오답체크] ①태조 왕건 ②광종(자단비녹의 4색공복) ④광종(광종은 교종은 균여로 하여금 화엄종 중심으로, 선종은 혜거로 하여금 중국에서 새로 도입한 법안종(法安宗)을 중심으로 정리하게 하였다.

난이도 : 중상 (문산계, 무산계는 알기 어려운 문제였으나 ①②④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급 문제는 아니었다.)

6.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국을 크게 5도와 양계, 경기로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을 설치하였다.
- ② 경은 중앙과 지방의 군현을 잇는 중간 역할을 담당한 기구의 하나로, 서경(평양), 동경(경주), 남경(양주, 지금의 서울)이 설치되었다.
- ③ 지방 출신 고급 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향리를 견제하도록한 한편, 상수리제도를 실시하여 향리 자제를 개경에 강제로 이주시켜 지방 일의 자문에 응하게 했다.
- ④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답 : ③

**해설** ①②④가 고려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 ①현종 때 전국을 5도와 경기, 그리고 양계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京)·도호부(4도호부 → 5도호부)·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을 두어 지방제도를 완성하였다. ②3경: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 → 문종 이후 : 개경, 서경, 남경(한양)

[적절하지 않은 것] ③사심관제도는 맞는 설명이지만, 상수리제도는 통일신라의 인질제도이고, 고려시대에 향리 자제를 개경에 강제로 이주시킨 것은 기인제도라고 한다.

난이도 : 중하

7. 고려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 ㉠ 몽골에 저항하던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 ㉡ 강화도와 진주에 도감을 설치하고 새로이 대장경을 판각하여 완성하였다.
- ㉢ 『상정고금예문』이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
- ㉣ 일연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와 전래기록을 수록한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 ①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답 : ①

**해설** ㉢ 『상정고금예문』이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강화천도초기,1234) → ㉡ 강화도와 진주에 도감을 설치하고 새로이 대장경을 판각하여 완성하였다.(재조대장경=8만대장경, 강화천도기에(최우~최항) 강화도에 대장도감, 진주(남해)에 분사도감을 설치하여 1236년에 시작 16년 만에 완성) → ㉠ 몽골에 저항하던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였다.(1270) → ㉣ 일연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와 전래기록을 수록한 역사서를 저술(월간집기, 충렬왕 )

난이도 : 중

8. 고려 시대의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포 양식은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짜여져 있는 양식으로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은 대표적인 고려 시대 다포 양식의 건물이다.
- ② 신라 불상의 양식을 계승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균형미가 뛰어난 걸작이다.
- ③ 서예는 고려 전기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고, 후기에는 송설체가 유행했다.
- ④ 고려 후기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같은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최영	우왕 2년(1376)	홍산대첩(부여)
최무선	우왕 6년(1380)	진포대첩(금강)
이성계	우왕 6년(1380)	황산대첩(남원)
정지	우왕 9년(1383)	관음포대첩(남해)
박위	창왕 1년(1389)	쓰시마 정벌

난이도 : 상상

11.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성종 때 시행된 관수관급제는 수조권자의 과다한 수취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조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 ② 조선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영농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 ③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 ④ 과전법 체제에서는 관료가 사망한 이후 수신전과 휴양전이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답 : ②

**해설** ①③④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② 직전법 폐지로 자영농은 급감하게 된다. → 직전법이 폐지되자 양반관료층의 토지소유욕구 확대되었고(수조권에 바탕을 둔 토지제도가 사라지면서 소유권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지주전호(소작인)제가 일반화, 확대되어 갔다. 즉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어 자영농은 급속도로 감소하게 된다.

난이도 : 하

12. 조선 시대의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과(대과)의 복시에서는 33명을 뽑았고, 이들은 다시 전시를 보았다.
- ② 문과(대과)의 최종 합격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 갑·을·병으로 나뉘었다.
- ③ 무과는 문과처럼 대과와 소과의 구별은 없었으나 초시·복시·전시를 치르는 것은 문과와 마찬가지로였다.
- ④ 소과 복시의 합격자 수는 각 도의 인구 비율로 배분되었다.

답 : ④

**해설** ①②③이 조선 과거제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 문과(대과)의 복시에서는 33명을 뽑았고, 이들은 다시 왕 앞에서 순위를 정하는 복시를 보았는데 이들은 성적에 따라 갑(3명)·을(7명)·병(23명)으로 분류되었다. (갑과 제1인자는 장원이라 하여, 관품이 없는 자일 경우 참서관(종6품)에 기용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 ④ 소과나 대과의 복시 합격자는 모두 성적순으로 선발되었다. (초시만 지역별 배분이 있다.)

난이도 : 중

13. 다음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은?

- ㉠ 신립 장군이 충주의 탄금대에서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 ㉡ 군민들이 첨사 정발의 지휘 아래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 ㉢ 조선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 ㉣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였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답 : ㉔

**해설** ㉔ 1592년 4월 약 20만의 왜군은 부산에 상륙하여 부산진 첨사 정발이 지휘하는 방어진을 격파하고, 이어서 동래부사 송상현이 지휘하는 방어진도 차례로 격파하였다: 정발 송상현 나오면 임진왜란 시작이라고 수업시간에 강조함 → ㉓ 신립 장군이 충주의 탄금대에서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4월) → ㉒ 조선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5월) → ㉑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였다.(6월)

1592	4	왜군의 조선 침략 - ㉔ 부산진·동래 함락 (정발, 송상현) ㉓ 충주 함락 (신립)
	5	선조, 평양으로 피신(곧이어 의주로 피난) 서울 함락 ㉒ 옥포해전 승리(원균, 이순신) 사천해전(이순신)
	6	㉑ 평양 함락
	7	한산도대첩(이순신)

난이도 : 중상

14. 조선 후기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이른바 ‘호락시비(湖洛是非)’로 불리는 큰 논쟁이 일어났다. 이 호락(湖洛)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조 때에 한원진과 윤봉구로 대표되는 충청도 노론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내세웠다.
- ② 호론의 주장에는 청나라를 중화로 보려는 대의명분론이 깔려 있었다.
- ③ 이간, 김창협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 중심의 노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였다.
- ④ 낙론의 주장은 북학파의 과학기술 존중과 이용후생사상으로 이어졌다.

답 : ㉔

**해설** ①③④가 호락논쟁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㉔호론의 주장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면서 이를 화이론(華夷論)으로 연결시켜 청을 오랑캐로, 조선을 중화로 보려는 대의명분이 깔려 있었다.

☑ 호락논쟁

구분	호론(湖論)	낙론(洛論)
주장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같다.
학문성향	[기]의 차별성 강조	[이]의 보편성 강조
인물	한원진	이간
특징	기존의 신분질서 유지 기능	조선 후기의 사회변화 수용
지역	충청도	서울·경기도
계승	북벌론 → 19세기 위정척사사상	북학사상 → 19세기 개화사상

난이도 : 중상

15. 다음 인조반정 이후 17세기에 발생한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㉓ 삼학사(三學士)가 심양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였다.
- ㉒ 이괄이 평안북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서울까지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㉑ 후금의 태종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 ㉔ 후금이 국호를 청(淸)이라 고치고 조선에 대하여 군신(君臣)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

- ① ㉓ → ㉒ → ㉑ → ㉔
- ② ㉒ → ㉑ → ㉔ → ㉓
- ③ ㉑ → ㉓ → ㉒ → ㉔
- ④ ㉑ → ㉒ → ㉒ → ㉓

답 : ②

**해설** ㉠ 이괄이 평안북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서울까지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1624) → ㉡ 후금의 태종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정묘호란'을 일으켰다.(1627) → ㉢ 후금이 국호를 청(淸)이라 고치고 조선에 대하여 군신(君臣)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 → ㉣ 삼학사(三學士)가 심양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였다.

정묘호란 (1627)	원인	<b>친명배금정책</b> - 명의 가도 주둔 : 명장수 모문룡이 후금이 차지한 요동지방을 빼앗기 위하여 평안도 바다의 가도에 주둔함으로써 후금을 긴장시켰다. ㉠ 이괄의 난 (1624)
	결과	㉡ 후금의 황해도지역 침략(정봉수, 이립등의 활약) → 화의 맺고 물러남(형제관계 동의!)
병자호란 (1636)	원인	㉢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1636), 조선에 <b>군신관계 요구</b> → 조선 거부 * 척화파(김상헌, 3학사 등)와 주화파(최명길 등)의 대립에서 척화파가 승리!
	전개	* 청의 한양 점령 → 인조, <b>남한산성</b> 피신과 45일간의 항전(봉림대군과 비빈은 강화도로 갔으나, 인조는 길이 막혀 소현세자등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 삼전도에서 굴욕적 항복(군신관계 맺고 명과의 관계 단절) * 두 왕자(소현세자·봉림대군)와 ㉣ 척화파 주동자(3학사 : 홍익한, 윤집, 오달제)들이 인질로 잡혀가고, 후일 봉림대군이 귀국하여 효종으로 즉위한다.

난이도 : 중

16. 다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천리(千里)를 끌어다 지척(咫尺)으로 삼았으며, 태산(泰山)을 깎아 내려 평지(平地)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南大門)을 3층으로 높이려 한다.” 『매천야록』

- ① 만동묘를 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 ②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각각 정치와 군사의 최고 기관으로 삼았다.
- ③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재건하고, 광화문 앞의 육조 거리 등 한양의 도시 구조를 복원하였다.
- ④ 정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답 : ④

**해설** 제시문은 흥선대원군의 발언이다.( 대개 천리 지척이란 말은 종친을 높인다는 뜻이요, 남대문 3층이란 말은 남인을 천거하겠다는 뜻이요, 태산을 평지로 만들겠다는 말은 노론을 억압하겠다는 의사이다.) → ①②③이 흥선대원군의 활동이다.(만동묘, 서원 철폐, 의정부와 삼군부 기능 부활, 경복궁 재건 )  
[적절하지 않은 것]④ 흥선대원군은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각각 정치와 군사의 최고 기관으로 삼아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난이도 : 하

17.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환궁하여 1897년 10월 12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는 '대한(大韓)'으로 바꾸었다. 또한 1899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발표하여 만국공법(국제법)상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 ①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 ②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1897년 2월 경복궁으로 환궁하였다.
- ③ '대한국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 ④ 대한제국은 입헌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였다.

답 : ③

**해설** 제시문은 대한제국에 대한 것으로 ③이 옳다. → 대한제국의 헌법격인 ③ '대한국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오답체크] ① 대한민국 국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전제황권만 강조하고 있다.(2조 대한민국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3조 대한민국 대항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 ② 고종은 경운궁(현 덕수궁)으로 환궁하였다. ④대한제국은 전제황권을 강조하고 있다.

난이도 : 하

18. 다음은 어느 애국계몽단체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단체보다 먼저 결성되어 활동했던 단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있음이라. 오늘날 우리 한국은 3천리 강토와 2천만 동포가 있으니 힘써 자강하여 단체가 합하면 앞으로 부강한 전도를 바랄 수 있고 국권을 능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강의 방법으로는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켜 흥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무릇 교육이 일지 못하면 민지(民智)가 열리지 못하고 산업이 늘지 못하면 국부가 부강할 수 없다. 그런즉 민지를 개발하고 국력을 기르는 길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산업을 발달시키는 데 있지 않겠는가?

㉠ 헌정연구회 ㉡ 대한협회 ㉢ 보안회 ㉣ 대한자강회

- ① ㉠, ㉡                      ② ㉡, ㉢                      ③ ㉠, ㉣                      ④ ㉡, ㉣

답 : ③

**해설** 제시문은 대한자강회의 글이다. 대한자강회는 1906년에 설립된 것으로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단체이다. → 이전에 결성된 단체는 ㉢보안회 ㉠헌정연구회

☑ 대한제국기 주요 애국계몽단체

보안회 (1904)	일제의 황무지개간권 반대운동 → 저지 성공, 일제 탄압으로 해산
헌정연구회 (1905)	①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적으로 성립 ② 일진회의 반민족적 행위를 규탄하다 해산됨
대한자강회 (1906)	헌정연구회 계승( 장지연, 윤치호 등) 한·일 신협약 반대 투쟁과 고종황제 강제퇴위 반대운동 전개 → 일제 탄압으로 해산(1907)
대한협회 (1907)	대한자강회 계승, 이후 친일적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난이도 : 하

19.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본은 국권침탈 이후 본격적으로 토지침탈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② 중추원은 총독부 자문기구로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시로 개최되어 식민 행정에 간여하였다.  
 ③ 우리 민족 기업을 탄압하고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④ 일본은 광산·어장·산림 등 자원에 대해서도 수탈을 강화하였다.

답 : ②

**해설** ①③④가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①토지조사사업(1912~1918) ③ 1910년 회사령 공포, 1920년 폐지 ④ 산림령(1911),어업령(1911),광업령(1915)은 모두 1910년대 [적절하지 않은 것] ② 중추원은 총독부의 조선인 자문기구였으나, 친일파로 이루어졌고 3.1운동이전까지 10년간 회의 한 번 없는 허수아비기관이었다. 1920년 이후에는 식민 통치를 위한 자료 수집기구로 활용된다.

난이도 : 하

20.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한국문제를 언급하여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 '조선 건국 동맹'이 조직되었다.  
㉢ '한국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를 결정하였다.  
㉣ 3국 정상들은 독일에 모여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답 : ②

**해설** ㉠ 한국문제를 언급하여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이집트 카이로회담,1943.11) → ㉡ 국내에 '조선 건국 동맹'이 조직되었다.(1944.8) → ㉣ 3국 정상들은 독일에 모여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재확인은 독일 포츠담회담,1945.7)→㉢ '한국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를 결정하였다.(모스크바3상회의,1945.12)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4개항

첫째. 조선의 독립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임시조선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한다.

둘째. 첫째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즉 조선임시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할 것

셋째. 미소공동위원회는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하여 미, 영, 중, 소의 4개국이 참여하고 최고 5년 기간의 신탁통치안을 마련할 것

네째.. 미·소 사령부 간의 긴급 회담이 2주일 내로 개최된다.

난이도 : 상